

# 감초 배우들 덕에 드라마 볼 맛 나네

### 강기영·오대환·임원희 등 개성 만점 연기로 눈길

화려하고 멋진 주인공들 사이에서 남다른 감초 연기로 극을 짚 채우는 배우들이 있다. 어딘가 알맹이만 특유의 코믹함 덕분에 '입상'은 아닌 것도 공통점이다.

최근 흥행 중인 tvN 수목극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강기영(34)은 그야말로 감초의 대표격이다. 남주인공 이영준(박서준 분)과 호흡하는 박유식 역의 강기영은 나르시시스트라 아무도 '작인'을 못 하는 영준에게 유일하게 촌철살인을 가하는 인물이다. 이영준 부회장을 고용한 고용주, 즉 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정이다.

물론 이영준이 그렇다고 박유식에 당할 캐릭터는 아니지만, 의외로 단순 무식하고도 순수한 영준의 성격을 잘 파악해 티 안 나게 놀려먹는 유식의 모습이 큰 웃음을 준다.

'김비서'인 미소(박민영)와의 관계에서 오는 고민을 '이중사촌의 대학동기'란 가상의 존재를 빌어 유식에게 털어놓으면, 유식이 바로 영준의 이야기임을 눈치채고 그에게 직언하며 그를 들었다 놔다 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영준 편에 서니 든든하기까지 하다.

유식이 늘 옆에서 흉상 켈리를 감질나게 먹는 유식을 구박하다가도 미소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따라서 켈리 껌질을 까는 영준의 모습 등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티격태격 케미(케미스트리, 조화)가 로코를 더 풍성하게 살린다.

연극배우 출신의 강기영은 2014년 드라마 '고교처세왕'을 시작으로 '돌아와요 아저씨', '더블유', '더날', '로봇이 아니야' 등 여러 작품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강기영은 27일 연합뉴스에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감사하게도 원작 소설과 웹툰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며 "유식이란 캐릭터 자체가 지닌 독특한 특징이 많아 원작을 많이 모방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청자 반응 중 가장 감사한 게 강기영을 보고 유식이란 캐릭터를 만든 게 아니냐는 말씀"이라며 "저와 유식의 유사점이라면 건강보조식품의 '노에'라는 점, 친구들과 만나면 누가 누가



강기영

임원희

오대환

앞 쉬고 더 많이 이야기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얘기하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유식의 인기 비결에 대해서는 "대기업 사장이지만 사무적인 모습보다 '털 바보'가 더 바보에게 연애 상담을 해주는 친근한 모습이 많이 시청자들이 이입해준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애정을 갖고 재밌게 발달"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청률 4%를 돌파하며 호평받는 OCN 주말극 '라이프 온 마스' 속 이윤기 역의 오대환(39) 역시 이번에도 남다른 감초 연기를 보여준다.

1988년, 인성시 서부경찰서 강력계 경사로 근무 중인 이용기는 '행동대장'이다. 배운 것 없이 더러운 성질만 웃자라 오로지 뛰고, 때리고, 잡는 행동파이다. 그런 그가 유일하게 충성하는 대상은 동철(박성웅)인데, 그런 동철에게 눈엣가시가 되는 태주(정경호)가 쉽게 보일 리 없다.

자신보다 서열이 높으니 '대접'은 나름대로 하는데, 표정은 영 아니다. 껌을 '짜짜' 씹으면서 태주에 들리라는 듯 '땃땃'하진 않던 태주와는 다른 용기를 오대환은 200% 알뜰하게 그려낸다. 물론 동철이 점점 태주에게 공감하듯 용기 역시 마음이 돌아설 것을

알기에 겁내면 보이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최근에만 해도 '피고인', '자체발광 오피스', '명불허전', '리턴' 등에서 다양한 얼굴의 조연으로 활약한 그는 이번에도 극 완급을 적절히 조절한다.

오대환과 더불어 강력계 경장으로 '한태주 꿈나무'로 활약 중인 막내 형사 조남식 역의 노중현 역시 1988년의 순수함을 부각하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시청률은 저조한 편이지만 SBS TV 월화극 '기름진 멜로'에서 왕준수로 분한 임원희(48)는 마치 모차르트를 질투하는 살리에리처럼 주인공 서풍(준호)을 경계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중국 지린성 출신으로 중화요릿집 '화룡점점' 녀 버린 그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채철자(박지영) 앞에서는 또 '사랑' 면모를 보여주는 반전 매력까지 갖췄다.

황금색 용이 그려진 세프 복장을 하고 상남자처럼 불을 다루는 임원희의 모습은 준수 모습과 대비돼 두 사람이 맞붙을 때마다 코믹한 장면이 연출된다.

이에 임원희는 "카리스마 세프와 사랑꾼 모습을 함께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고 연기 열정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 영화 '독전' 500만 관객 돌파

### 올해 한국영화론 처음

조진웅·류준열 주연 '독전' (사진)이 올해 한국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500만 고지를 밟았다.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누적 관객 수 500만61명을 기록했다.

이날 50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독전'은 범죄 장르 영화의 대표작이라고 할 '신세계' (2013),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2012)의 흥행 기록을 뛰어넘었다.

'독전'의 손익분기점은 280만 명 선으로 알려졌다. 전일까지 429억560만1천813원의 누적 매출액을 기록했다.

제작사 측은 "'500만 관객 돌파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데드풀2',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등 할리우드 대작 공세 가운데 이뤄낸 값진 흥행"이라고 평가했다.

'독전'은 아시아 최대 유통 마약 조직의 보스 '이 선생'을 잡기 위해 펼쳐는 암투와 추격을



그린 범죄 액션 영화로 흥풍 거장 두치핑 감독이 연출한 영화 '마약전쟁'을 리메이크했다. /연합뉴스

## '썰전' 하차 유시민 "정치비평과 작별"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출연

정치인 출신 유시민 작가(가운데)가 JTBC '썰전'에서 2년 반 만에 하차한다.

27일 제작진에 따르면 유작가는 "이제 정치에서 더 멀어지고 싶어 정치비평의 세계와 작별하려 한다"며 "앞으로는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본업인 글쓰기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작가는 2016년 1월부터 진보 측 패널로 출연한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지켰다. 유작가는 보수 측 패널 전원택 변호사, 박형준 교수와의 열띤 토론에서 날카로운 분석을 쏟아내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는 "너 달만 해 보자며 시작한 일을 2년 반이나 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 양당계 치른 19대 대선,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제1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이어진 한국 정치의 숨 거뒀던 변화를 지켜보며 비평했다"고 돌아봤다.

유작가는 '썰전'을 통해 "세상과 정치를 보는



제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유작가는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셨던 시청자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JTBC 경영진, '썰전' 제작진, 진행자 김구라, 패널로 유쾌한 갑론을박을 벌였던 전원택, 박형준도 고맙다"고 전했다.

유작가가 출연하는 마지막 방송은 오는 28일 방송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유작가의 뒤를 이어 진보 측 패널로 출연한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5:0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기획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볼더치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백미인생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TV소셜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UHD 부잣집 아들 (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 (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인형의 집 (재)		00 대한민국 으뜸기업을 잡아라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볼더치	00 SBS 12 뉴스 15 민방 네트워크 뉴스 30 러시아 월드컵 하이라이트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30 영상앨범 산 (재)	40 2018 지구촌어린이들이 희망더하기	
2	20 드래곤에그 50 와일드 코리아 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45 뽀뽀모 도야 놀자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하이라이트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15 판다랑 45 푸리가 식사교실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15 비밀과 거짓말 (재)	00 뽀뽀뽀 로그인 코리아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 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파파독 2 15 토이캡 2 30 주간연예수첩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월드컵 투데이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정글의 법칙 (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인형의 집	10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속보이네TV 인사이드	55 할머니네 통가지지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4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이리와 안아줘	30 훈남정음
10	00 KBS 스페셜 5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0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40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40 2018 러시아월드컵
11				
12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뽀뽀뽀 뽀로로
05:30 통일의 길 (과학 탐험대)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9:00 레이디버그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	19:30 EBS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장수의 비밀	19:50 배워서 남줄라(재)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다큐 시선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로보가 폴리	<마다가스카르의 어린 왕자 4부 오늘도 그들은 행복하다>
08:30 미니특공대 X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랄랄라 뽀우	15:15 파프리카	<심심산골, 심심해서 좋아 4부 우리들의 비밀기지>
09:00 두다다쿵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다큐 시선
09:30 원더볼츠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30 한국기행(재)	16:30 랄랄라 뽀우(재)	25:05 지식채널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엔보사와 매실소스 새우샐러드>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쿵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인식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라. 48년생 상대의 내심을 읽을 수 있어야겠다. 60년생 상당한 고뇌가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72년생 조심해서 진행하라. 84년생 미진하다면 반드시 지금 보충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03, 08</p>	<p>42년생 외형까지 관리한다면 효과가 배가 된다. 54년생 전환되면서 상당한 수익을 부른다. 66년생 노출하지 않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78년생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임의적 상황에 놓여 있다. 90년생 상대로부터 인정 받을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07, 75</p>
<p>37년생 비로소 실효성을 획득하게 된다. 49년생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61년생 국면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하라. 73년생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85년생 터무니없는 소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41, 18</p>	<p>43년생 결과는 대동소이 할 것이니 형편에 따라라. 55년생 점점 수월해질 것이니 진중하게 진행하라. 67년생 양호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모양새다. 79년생 탄력이 붙으면서 증가 일로에 놓이리라. 91년생 양보가 가장 빠르고 유익한 방법이다. 행운의 숫자 : 29, 77</p>
<p>38년생 신중하게 처신하여야만 한다. 50년생 많은 재앙이 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62년생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안정권에 들어서게 된다. 74년생 일취월장할 수 있다. 86년생 지출과 발언을 최소화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9, 44</p>	<p>44년생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이 유용하다. 56년생 발전적으로 이동하는 대국이다. 68년생 불합리한 판도 아니 벗어나야만 한다. 80년생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92년생 본분을 잊어버린다면 곤혹스러움에 처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78, 99</p>
<p>39년생 무리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 51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63년생 체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느니라. 75년생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응대하는 것이 낫다. 87년생 처지와 정황을 감안하여 처신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행운의 숫자 : 67, 32</p>	<p>45년생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57년생 불상사가 터질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라. 69년생 별 재미가 없을 것이다. 81년생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다. 93년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2, 23</p>
<p>40년생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환기에 와 있다. 52년생 불만이 울 수 있으나 머지않아 해소되리라. 64년생 공전의 판국을 이끌만한 찬스이다. 76년생 지금 즉시 뜻을 펼쳐보는 것도 기대해 볼만 하다. 88년생 말 못할 갈등에 사로잡힐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4, 74</p>	<p>34년생 계속되는 형세 하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다. 46년생 가까운 이가 괴로움을 안겨다 주리라. 58년생 구태의 연함에 사로잡힌다면 진실보하기도 어려워진다. 70년생 전반적인 점검을 해봐야 할 시기이다. 82년생 숨은 기쁨이 크다. 행운의 숫자 : 30, 73</p>
<p>41년생 동일한 현상이 반복 되면서 상승 기류를 마련한다. 53년생 기대 이상으로 대단한 효과가 있다. 65년생 장담하고 나면 머지않아 후회하게 될 것이다. 77년생 희생이 따르더라도 감수하라. 89년생 삼가는 마음으로 임하면 감천하리라. 행운의 숫자 : 96, 66</p>	<p>35년생 불변한 사상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고치자. 47년생 잔잔한 미소를 짓게 되는 날이다. 59년생 다양한 방책과 대비를 요한다. 71년생 정성을 다 하라. 83년생 산 넘어 산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인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55</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